

【특 집】

‘만주국’ 조선계 문단에서의 향토 담론과 안수길의 『북향보』*

이 해 영*

┆ 차 례 ┆

- I. 제국의 향토 담론과 안수길의 『북향보』
- II. ‘만주국’ 조선계 문단의 향토 담론: 오죽협화와 조선문학의 보존
- III. ‘만주국’ 조선계 문학의 이론적 모색: 염상섭과 개척문학
- IV. 염상섭 사상의 문학적 실천: 안수길의 『북향보』
- V. 결론

국문초록

이 글은 ‘만주국’ 조선계 문단의 향토담론과 그 맥락 속에서 안수길의 장편소설 『북향보』를 살펴보았다. 제국 일본의 향토담론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만주국’ 조선계 문단의 향토 담론은 1940년 초의 “만주조선문학건설신제의”를 제목으로 한 『만선일보』 지상토론과 이어 약 한달 뒤 『만선일보』사 주최로 이루어진 “내·선·만 문화좌담회”로부터 시작되었으며 기본적으로 ‘만주국’ 조선계 문학의 독자성을 강조하였으나 그 본질은 만주에서 조선문학의 보존, 즉 조선어로 창작되는 조선문학의 보존에 있었다. 조선문학의 보존을 핵심으로 하는 ‘만주국’ 조선계 문학의 실천을 위한 이론적 모색에 적극 나선 대표적 작가는 염상섭이다. 염상섭은 그 특유의 날카로운 정치적 감각으로 일제가 1941년 ‘만주국’에서 반포한 “예문지도요강” 중의 “예문을 개척단까지 침투시키고 싹트기 시작한 개척단의 신생문예활동을 육성해야 한다”는 조항에서 만주에서 조선문학이 보존되고 발전될 수 있는

* 이 논문은 2014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학진흥사업단)을 통해 해외 한국학중핵대학육성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AKS-2014-OLU-2250004).

** 中國 華東師範大學校 中文系 / 中國 중국해양대학교 한국어과 교수.

구체적인 근거를 확보하였으며 그 방안으로 개척문학에 근거한 ‘만주국’ 국민문학으로서의 자격확보를 제시하였다. 안수길은 만주시기 작품의 총 결산이자 그의 최초의 장편소설이기도 한 『북향보』에서 염상섭의 이러한 문학이론과 사상을 적극 실천하였다. 안수길은 『북향보』에서 만주 개척의 공로를 통한 조선농민의 ‘만주국’ 국민으로서의 자격을 확인함과 동시에 벼농사, 즉 수전개간의 공로를 특별히 강조하였다. 이는 조선농민이 ‘만주국’의 국민이 되기 위한 길은 수전개간으로써 만주의 농업건설에 기여하는 것이며 조선인 개척문학 내지 농민문학은 그러한 개척민의 마음의 양식인 동시에 정신적 원동력의 공급원이 되기 때문이라고 한 염상섭의 문학사상과 동떨어 놓이는 것이다. 결국 염상섭이 재만 조선인 첫 작품집 『짜트는 대지』의 서문과 특히 안수길의 개인 창작집 『복원』의 서문에서 보여준 문학사상은 안수길에게 일종의 정신적 기둥이자 식량이 되었을 것이고 안수길은 그것을 『북향보』의 창작지침으로 삼았을 것이다.

주제어 : ‘만주국’, 제국, 향토, 염상섭, 안수길, 『북향보』

I. 제국의 향토 담론과 안수길의 『북향보』

1930년대 제국 일본의 중앙문단 즉 일본 본토 문학에서는 ‘향토주의’가 하나의 문학적 사조로 나타난다. 쇼와 초기의 경제공황으로 일본 농촌경제가 파탄에 이른 결과 아동들에게 애향심과 애국심을 함양하고 향토구제를 하려는 향토교육운동이 문부성의 주관으로 전국적으로 전개되었다. 또한 농촌 구제와 존황애국(尊皇愛國)이 결탁된 농본주의 사상이 대두되어 사회주의 사상의 탄압으로 전향하게 된 지식인들이 ‘고향’(土의 세계, 農의 세계)에 회귀하는 현상도 일어난다. 1935년에는 메이지유신 이후의 외래 근대사상을 비판하고 향토 일본으로의 회귀를 표방하는 일본 낭만파도 나타났다.¹⁾

제국 일본의 중앙문단 즉 일본 본토 문학에서 시작된 ‘향토’ 담론은 1930

1) 유수정, 2011, 『만주국 초기 일본어문학계의 <만주문학론>』, 『韓日軍事文化研究』 11, 291쪽.

년대 후반에 이르면서 곧 제국의 각 식민지로 파급되었으며 ‘지방색’과 ‘향토색’을 기본 특징으로 하면서도 각 식민지와 일본제국이 맺고 있는 관계에 따라 각이한 양상을 나타내었다. 또한 동일 식민지 내부에서도 그 주체가 제국의 식민지로 이주한 일본인 즉 식민주의자 그룹이나 아니면 식민지의 토착민족 즉 피식민 그룹이나에 따라 그 ‘향토’ 담론은 서로 다른 양상을 나타내었으며 소비와 수용의 맥락 역시 다층적이고 중층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식민지가 되고 이미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타이완에서는 재주 일본인들 사이에 이미 토착화가 진행되어 타이완에 대한 ‘향토의식’이 싹트으며 내지의 일본주의적 향토주의를 그대로 수용할 수 없었고 타이완을 중심으로 한 남방권의 재편성이라는 새로운 지역주의(regionalism)가 모색되었다.²⁾ 한편 타이완 토착작가들 속에서는 ‘향토’문학이 사회주의적 사상과 결합되어 문예 대중화를 목표로 타이완화문(臺灣話文)운동이 전개되었으며 이는 반일 민족주의적 문학의 형태를 띠었다. 식민지 조선에서는 향토 담론이 제국의 지방으로서의 조선 즉 조선의 지방성에 관한 논의로 전개되었으며 재조 일본인과 최재서 등 조선의 문인들 사이에 조선문학의 지방성 내지 독창성에 대한 논쟁이 벌어진다. 최재서는 조선문학의 독창성을 의식적으로 강조하고 이론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조선문학이 일본문학의 하위에 놓이는 것이 아니라 그와 동등한 위치에서 국민문학 안에 자리하기를 바랐다. 반면 재조 일본인들은 일본문학의 일익으로서의 조선문학 즉 중앙 일본문학에 대한 지방 조선문학의 위치를 강조하였다.³⁾

그런데 일본 제국의 실질적인 지배하에 있으면서도 외형적으로는 독립국의 형태를 띠고 독립국이자 복합민족국가를 표방하던 ‘만주국’에서 향토 담론은 재만 일본인에게만 일본의 지방 혹은 일본의 연장주의가 아닌 일본에

2) 유수정, 위의 논문, 291~292쪽.

3) 오태영, 2008, 『‘조선’ 로컬리티와 (탈)식민 상상력-이효석의 『화분』과 『벽공무한』을 중심으로』, 『사이間SAI』 4, 232~237쪽 참조.

서의 분리와 독자성을 강조하는 쪽으로 발전하였다. 즉 일본 본토문학에서 분리하여 독자적인 ‘만주국’ 문학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 그 요지였다. 만계 즉 중국계 작가들의 경우에는 1938년 6월, 『대동보』 문예란의 혁신을 앞두고 신문학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山丁이 제기한 “진실을 묘사하고”, “진실을 폭로하는” 것으로 향토문학이 제기되었으며⁴⁾ 여기에 대해 古丁이 “무방향의 방향(無方向的 方向)” 즉 “주의와 주장을 갖지 말자”는 주장으로 비판을 제기하여 논쟁적 형태를 띠게 되었다.⁵⁾ 그러나 일본의 개발과 건설 위에 만들어진 도시 문명을 거부하고 만주의 원시적 대자연과 만주 대지에의 회귀를 그린 山丁의 장편소설 『녹색의 계곡(綠色的谷)』은 향토 소비와 수용의 맥락에서는 외려 만주의 독자성 중국 본토 문학과와의 분리주의를 보여주었다.⁶⁾ 재만 조선계의 경우도 일본계와 마찬가지로 ‘만주국’ 조선계 문학의 독자성을 강조했는데 이 경우, 그 분리의 대상은 조선반도의 문학이었다. 즉 재만 조선계 문학은 그 자체로 특수성과 독자성을 갖고 있으며 더는 조선문학의 연장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재만 일계 문학이 단순히 만주의 특수성 내지 만주 이주 토착화가 서서히 진행되는 과정의 향수 등으로부터 출발하여 내지 일본문학과는 다른 ‘만주국’ 일계 문학의 독자성을 주장했던 것에 비해⁷⁾ 재만 조선계 문학은 만주의 특수성이라는 기본적인 흐름 위에 ‘내선일체’와 ‘오족협화’라는 두 지배이데올로기의 단층과 길항 사이에서의 “조선문학의 보존”이라는 운명적 문제까지 포함하고 있었다. 즉 조선문학을 보존하기 위해 조선문학과 분리한다는 주장이었다. 1944년에 창작된 안수길의 『북향보』는 바로 이러한 만주국 조선계 문학의 복잡하고 미

4) 오카다 히데키 저·최정옥 역, 2008, 『문학에서 본 ‘만주국’의 위상』, 도서출판 역락, 111쪽.

5) 오카다 히데키 저, 최정옥 역, 위의 책, 94쪽.

6) 프래신깃트 두아라(한석정 옮김), 2008, 『주권과 순수성』, 나남, 394~426쪽 참조.

7) 재만 일계 문학의 경우 총적인 방향에서는 내지 일본문학과와의 분리 및 ‘만주국’ 문학의 독자성을 주장하였지만 재만 일계 문학 내부에서는 ‘만주 공작의 선을 따르는 문학’이나 자유로운 문학이나 혹은 ‘신경 이데올로기이나’ ‘대련 이데올로기이나’ 등 여러 가지 논쟁의 모습을 띠었다. 이에 대해서는 오카다 히데키 저, 최정옥 역의 위의 책, 17~35쪽을 참조하거나 혹은 유수정의 위의 글을 참조 바람.

묘한 향토 담론의 결과물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안수길의 『북향보』에 대한 연구는 주로 친일/민족주의의 이분법적 구도 위에서 작품을 바라보거나 혹은 이러한 이분법적 구도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안으로 안수길의 현실인식을 생존 제일의 논리로 바라보았다.⁸⁾ 혹은 당시 만주국의 건국이념의 하나였던 ‘민족협화’와 당시 재만 조선인 사회의 한 이슈가 되기도 했던 조선인의 ‘자치’라는 두 측면에서 안수길의 현실인식을 분석하기도 했다.⁹⁾ 본고는 이러한 기존 논의에 기초하여 안수길의 장편소설 『북향보』를 당시 ‘만주국’ 조선계 문단에서 이루어진 향토 담론의 맥락 속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II. ‘만주국’ 조선계 문단의 향토 담론: 오족협화와 조선문학의 보존

‘만주국’ 조선계 문학의 독자성을 강조한 ‘만주국’ 조선계 문단의 향토 담론은 1940년 초의 “만주조선문학건설신제의”를 제목으로 한 『만선일보』 지상토론과 이어 약 한달 뒤 『만선일보』사 주최로 이루어진 “내·선·만

8) 안수길의 『북향보』에 대한 기존 논의로는 다음과 같은 연구들이 있다.

오양호, 1988, 『한국문학과 간도』, 문예출판사; 민현기, 1989, 『안수길의 초기 소설과 간도 체험』, 『한국근대소설과 민족 현실』, 문학과 지성사; 최경호, 1994, 『실향시대의 민족문학-안수길 연구』, 형설출판사; 김윤식, 1986, 『안수길 연구』, 정음사; 채훈, 1990, 『일제강점기 재만 한국문학연구』, 깊은샘; 이상경, 1996, 『간도체험의 정신사』, 『작가연구』 2, 새미; 정덕준, 2004. 12, 『안수길 소설연구』, 『한국문예비평연구』 15,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장춘식, 2004, 『해방전 조선족 이민소설 연구』, 민족출판사; 한수영, 2004, 『친일문학 논의와 ‘재만조선인문학’의 특수성』, 『제일본 및 재만주 친일문학의 내적 논리』, 도서출판 역락; 김중호, 1993, 『1940년대 초기 만주 유민소설에 나타난 ‘정착’의 의미-대지의 아들』과 『북향보를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25, 국어교육학회; 김미란, 2009, 『만주, 혹은 자치에 대한 상상력과 안수길 문학』, 『상허학보』 25, 상허학회; 정현수, 2005, 『안수길의 『북향보』론』, 『한국언어문학』 54, 한국언어문학회; 서재길, 『안수길의 초기 장편소설』, 『북향보 화환』(안수길 전집 3), 글누림, 2011.

9) 이해영, 2014. 8, 『안수길의 장편소설 『북향보』의 현실인식』, 『한국현대문학연구』 43; 이해영, 2015. 9, 『偽滿洲國 조선계 작가 안수길과 ‘민족협화’』, 『국어국문학』 172.

문화좌담회”로부터 시작되었다. 1930년대 중반에 이미 형성되었으나 즐곤 침체기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만주 조선인 문단이 1940년 초, 갑자기 당시 ‘만주국’ 유일의 조선문 신문이었던 『만선일보』의 주최로 이러한 조선계 문학 건설을 둘러싼 토론을 벌인 이면에는 1939년말 ‘만주국’의 일계와 만계 작가 사이에서 준비되고 있었던 ‘일만문예협의회’설립 추진이 그 촉발 계기가 되었다.¹⁰⁾ 특히 『만선일보』 지상토론에 참가한 논자들 중, ‘本社記者’라고 소속을 밝히고 있는 尹道赫은 상, 중, 하로 3회에 나뉘어 발표한 글에서 ‘中’편인 『滿洲文學人の 方向과 文學人の 態度』와 ‘下’편인 『明日의 文學史와 作品의 價値』에서 모두 ‘일만문예협의회’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대목은 『만선일보』 지상토론이 이를 강하게 의식하고 모종 의미에서는 이에 대한 ‘만주국’ 조선계 문단의 유력한 대응을 위해 이 지상토론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1940년 1월12일부터 2월20일까지 총 21회에 거쳐 『만선일보』에 연재한 “만주조선문학건설신제의”에서는 모든 논자가 약속이라도 한 듯이 만주 조선계의 ‘만주국’ 국민의 자격과 책무에 대해 논하고 있으며 ‘만주국’ 국민문학으로서의 조선계 문학을 주장하였다. 그 취지는 한반도 내지의 조선문학의 전통을 이어받으면서도 만주에 살고 있는 조선인의 독자적인 문학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만주 조선인문학은 분명 북향의식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지 조선의 변방 혹은 지방성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의식이다.¹¹⁾ 또한 그것의 가능성과 그 근거를 ‘만주국’의 건국이념의 하나인 “오족협화” 내지 “민족협화”에서 찾았다. 그러나 그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부분의 글들에서 ‘만주국’ 국민문학으로서 조선계 문학에 대한 논의는 매우 피상적이며 그 정의나 성격 구명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

10) 박려화, 2017. 2. 24, 『일제말 ‘만주국’과 재만조선인작가의 문학열』, 『帝國與鄉土』 프라임 인문학진흥사업단 글로벌 동아시아 문화콘텐츠 교실·원광대학교 국제학술회의 논문자료집, 120쪽.

11) 김재용, 2012, 『동아시아적 맥락에서 본 ‘만주국’ 조선인 문학』, 『문명의 충격과 근대 동아시아의 전환』(이해영 편, 중국해양대학교 한국연구소 총서), 도서출판 경진, 273~275쪽 참조.

고 매우 혼란스러움을 알 수 있다. 논자들은 모두 ‘만주국’ 국민문학으로서의 조선계 문학이 조선반도의 조선문학과는 달라야 하며 만주의 특색을 띠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그러한 ‘다름’ 내지 ‘만주의 특색’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대체적으로 만주의 광활함, 거친 자연 등을 거론하였다. 결국 논자들은 조선문학과는 다른 ‘만주조선문학’을 건설할 것을 주장했으나 그 밑바탕을 관류하는 공동의 정서는 ‘만주조선문학’은 조선문학과는 다른 독자성을 띤 문학이지만 조선문학의 전통을 그 기초로 하고 있으며 조선문학으로서의 성격이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즉 그 핵심과 본질은 조선문학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조선문학을 보존하기 위하여 ‘만주국’ 예문운동에 적극 참가하고 ‘민족협화’에도 적극 참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만주조선문학’ 건설에 대한 이들의 글이 얼마나 모순적이고 피상적인 지는 ‘本社記者’라고 소속을 밝힌 윤도혁의 글에서 잘 나타난다.

… 近者에는日滿文藝協會의 組織訓連까지있서 日本 滿洲間에名稱그 대로 文藝協議와文化交流를企圖하고있는데 이는單純히 日本文學과日本人作家만이아니고 滿洲人의滿洲文學까지 翻譯하여 日本文壇에紹介하며 會員으로는 滿洲人作家도參加케되는데 帝國臣民으로서의朝鮮人文學者가 거기에參加치못함은무슨까답인가 …¹²⁾

위의 글에서 보다시피 『만선일보』 소속 기자 윤도혁은 재만 일본인 문인들의 동향에 매우 민감하며 그들과 만계 작가들의 교류와 협력에도 특별히 주목하고 있다. 특히 재만 일본인 작가들과 만주인 작가들 사이에서 추진된 “일만문예협의회” 설립 준비에 대해 강하게 의식하면서 조선인 문학자가 참여하지 못한데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대목은 만주의 조선인 문학자에 대한 그의 인식이다. 그는 만주의 조선인 문학자에 대해 “帝國臣民” 이라고 거침없이 호명하면서 “會員으로는 滿洲人作家도參

12) 윤도혁, 1940. 1. 18, 『滿洲朝鮮文學建設新提議-滿洲文學人の 方向과文學의態度』, 『滿鮮日報』.

가케되는데 帝國臣民으로서의朝鮮人文學者가 거기에參加치못함은무슨싸닭
인가” 라고 그 자격을 운운하며 만주인 작가보다 “帝國臣民” 인 조선인 문
학자가 더 부합된다고 역설하고 있다. 이는 앞서 그가 “現在滿洲國全國民四
千萬에比하면 實로問題안되는少數이나마 建國精神에基하야 새構成分子의一
員인 役割을擔當하고잇스니”¹³⁾라고 하면서 조선인을 만주국을 구성한 한
일원으로, 그리고 민족협화에 적극 참여할 것을 주장했던 것에 매우 위배되
며 모순적이다. 이는 그가 ‘만주국’에서 민족협화에 참여할 것을 주장하지
만 실은 “內鮮一體” 사상 속에 포획되어있으며 ‘만주국’에서 조선인의 위치
를 일본 “제국”의 신민으로 만주인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는 것으로 인식하
고 있음을 무의식적으로 고백한 것이다. 즉 그의 무의식적 의식식민주의자
로서의 내면을 고백한 것이다. 이런 의식은 ‘만주국’의 국가성격에 대한 그
의 이해와 직결되어있다. ‘만주국’의 국가성격에 대하여 그는 “滿洲리는自
體가 亦是政治的 經濟的 文化的모-든存立性이 日本의것에 依存하였고 거
다가理念만東亞에잇는 各民族을協和歸園시키어 構成하여노흔集約國家”¹⁴⁾
라고 표현하였는데 이는 ‘만주국’이 비록 각 민족의 “협화”를 건국이념으로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일본 주도 하에서의 “민족협화”임을 그가 분명
하게 의식하고 있었다는 근거이다. 이어서 그는 “各自民族이 제가몹自己民
族의特殊性을 發揮하는가운데에다만 協和精神을 基調發揚하고잇슴과가티
文學에잇서서도우리의三十年間傳統을 無視하야서는안될것은 煩設을要치안
함으로 이것을母體로하기는하되”¹⁵⁾ 라고 만주 조선문학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다. 결국은 그가 역점을 조선문학의 보존에 두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발
언이다. “민족협화”를 통한 ‘만주국’에서 조선문학의 보존이라는 그의 이러
한 인식은 만주 조선문학의 건설 방향에 대한 그의 주장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는 우선 만주의 특이성에 대해 언급하고 만주 조선문학이 조선

13) 윤도혁, 1940. 1. 17, 『滿洲朝鮮文學建設新提議(4)-滿洲朝鮮文學의傳統性과特異性』, 『滿鮮日報』.

14) 윤도혁, 1940. 1. 17, 위의 글.

15) 윤도혁, 1940. 1. 17, 위의 글.

내의 문학과는 달라야 함을 주장한다. 그러나 그는 그 뒤에 바로 “決斷코現在不完全을늦기고잇는『重二階』式 畸形이여서는안된다. 어디까지朝鮮의傳統을살리고 古典美가雅淡한朝鮮式이어야한다”고 강조함으로써 결국 만주 조선문학의 방향을 조선의 전통을 살리고 ‘조선식’을 살리는 쪽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보았다.

만주에서 조선 문학의 보존과 계승이라는 문제는 자국의 언어 즉 ‘조선어’로 씌어진 문학이라는 문제에까지 그 논의가 과급되었다. 『만선일보』의 이 지상토론에 참가한 金貴는 ‘國民文學’에 대해 “國民文學을 歸納的으로分析하면 一民族의獨自의인(自國의言語로)文學을 單位로하여 全體의國民文學은 構成되지는것이다”라고 정의를 내림으로써 ‘만주국’ 국민문학이란 바로 ‘만주국’을 구성하는 각 민족이 自國의 언어로 창작한 문학이라고 보았다. 이에 기초하여 그는 “그래서 朝鮮文學이 存在할수잇으면서 그것이 또한國民文學으로불리지는理由가 여기에잇다는것이다”라고 조선어로 창작한 조선문학이 ‘만주국’에서 존재할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들에 비해 申曙野는 훨씬 논리적이고 치밀하게 ‘만주국’에서 조선문학의 독자성과 자주성, 존재 가능성 여부를 주장한다. 그는 우선 “어데까지던지 公明한政治를理想으로한獨立國으로各民族이 똑같치 王道政治에 參劃하여協和會安居樂業의 新天地를 開拓할 歷史的的使命을가진 前代未曾有的國家에서 個別的으로 비단朝鮮文學만을分離하여 形成할수잇슬가?” 라고 ‘만주국’에서 조선문학의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발전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그리고 곧 다음과 같이 ‘만주국’에서 조선문학의 독자성, 자주성이 가능함을 주장한다.

그러면첫째로 민족협회란 도의국가란 複合的으로構成된各民族의 固有的自主性을無實히拋棄하고 無機的으로 結合한것을 意味함은 決코안인것으로各民族이 제각금所有하고잇는 固有의傳統과 自主性을 尊敬하며 서로理解하며 ……

個人에게 個人心理가存在함고가티 各民族에게도 그自體가가지고있는 共通의精神이있는 것으로... 一旦固定된 뒤에는 容易히變化되지안는다. 그리하여 이民族精神이外部에表現되는것이 國民族의文化인것이다.

... ..

卑近한例를 들어말하면四絃이 音樂으로써의 價値는 一絃 一絃이 獨自의 으로特異한 音色을가지고 있는것으로 이四絃이한하나가가지고있는 特異한 音色을有效히

調和하는데서만비로소音樂의眞善美가있는것과 마찬가지로滿洲朝鮮文學도 建國精神의理念下에서 自體가가지고있는 特異한音色을 充分히發揮하는 것이結局 四絃의理에適合한 眞善美의要素가될것으로이것이 國우리文學이 後天的으로가지고있는 性格닌것이다.

이러한 見地에서 滿洲에서 우리의 文學이

堂堂 히存在할수잇스며아울러 文壇을形成 할수잇다는것이다¹⁶⁾

그는 민족협화란 각 민족의 고유의 자주성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각각 소유하고 있는 고유의 전통과 자주성을 존경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면서 그것은 개인이 개인 심리가 존재함과 같이 각 민족에게도 쉽게 변화되지 않는 공통의 정신이 있다고 하였다. 그는 음악의 眞善美가 四絃을 이루는 하나하나의 현이 가지고 있는 독자적인 특이한 음색을 유효히 조화하는 데서 이루어진다고 하면서 만주조선문학도 ‘만주국’에서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이한 음색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만주에서 조선문학이 “堂堂 히存在할수잇”다는 것이다. 그런데 신서야의 이러한 이상적인 논리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각 민족의 문학이 독자적이고 자주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토양인 ‘만주국’이 반드시 각 민족의 평등한 관계를 전제로 하여야 하는 것이다. 실제로 신서야는 “滿洲國은 王道政治를 基礎로한 民族協和의國家인만큼 이곳에는 一強力民族의獨斷이存在할수업스며 또한過去의米國의 建國當時와가치 宗教的信念下에母國을버리고 自由의종소리에憧憬하여 달려온民族도 더욱母國延長을 慾望하는 植民地도안인것이다”¹⁷⁾라고 ‘만주

16) 申署野, 1940. 1. 30, 『滿洲朝鮮文學建設新提議(15)-滿洲朝鮮文學의性格과特異性』, 『滿鮮日報』.

국’이 민족평등에 기초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물론 ‘만주국’이 민족평등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신서야가 진심으로 믿고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다만 ‘만주국’에서 조선문학의 보존 이유 내지 발전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논리로 그렇게 믿고 싶었던 것인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다. 다만 그 역시 ‘만주국’에서 조선문학의 보존과 발전에 그 무엇보다도 역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만선일보』는 위의 지상토론이 끝난 뒤, 약 한달 뒤인 1940년 3월22일, ‘만주국’의 일계작가와 만계작가를 초대하여 “내선만문화좌담회”를 개최하여 그 좌담회 전문을 몇 회로 나누어 『만선일보』 지상에 전제한다. ‘만주국’ 예문활동에 대한 선계 작가들의 지금까지의 참여가 매우 저조하였음을 반성하고 일계, 만계 작가와의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만주국’ 문예활동에 적극 참가하기 위한 것을 주요 의제로 개최된 이 좌담회의에서 그러나 일계와 만계 및 선계 작가들은 각자 관심의 대상과 목표가 다르다. 일계 작가의 관심은 조선계가 왜 일본어로 창작하거나 주동적으로 자기 작품을 일본어로 번역하지 않는가에 대한 확인에 있으며 그 원인이 정치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다. 만계 작가들의 경우, 조선계의 작품에 궁금함을 표하면서 언어적 장애 때문에 읽을 수 없으니 일본어로 번역하면 자기들 스스로 중국어로 번역해 만계문단에 소개할 것을 약속한다. 또한 ‘만주국’에서의 ‘국민문학’의 전망에 대해서는 언어의 문제는 여전히 각 민족이 자기 언어로 창작해야 함을 주장한다. 조선계의 관심은 표면적으로는 ‘만주국’ 예문운동에의 참여와 ‘만주국’ 일계, 만계 작가들과의 교류에 있으나 그 내면은 실은 ‘만주국’에서 ‘조선어’ 창작의 가능성, 즉 조선문학의 보존 여부에 온통 관심을 집중하고 있었다. 우선 조선작가가 일본어로 쓰지 않는 것에 대해 정치적 원인 때문이냐는 일계 작가의 불만에 『만선일보』 기자 이갑기는 “문학의 국적이나 족적을 분류할 때 아직 문학개론 과정에 속하는 일이나마 우선 그 문학이 씌워진 언어의 족적이 무엇보다도 제일

17) 申署野, 1940. 1. 30, 위의 글.

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결정하면 ... 지나문학이기에 먼저 지나어문학임이 필요함과 같이 조선문학이기에 우선 조선어문학임이 제일의 조건이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조선 작가가 조선문학을 한다는 의미에서 조선어로 스게 되는 것이며 둘째는 역시 제 언어에 대한 애정으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고 상당히 논리적으로 반박하며 최소한 언어의 문제에서는 비슷한 처지에 처해있는 만계 즉 지나 문학까지 은근히 언급하고 있다. 또한 총 5개로 구성된 좌담회 의제 중, “국민문학의 건설! 만주국에서도 고려될까?-문학과 언어론 기타”의 제목으로 언어의 문제가 단독 의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우선 “만주국에서 장차 국민문학의 확립에 대한 무슨 논의라도 있습니까?”라고 ‘만주국’의 국민문학의 발전방향과 형태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내며 이어 “그러면 만주엿 국민문학이 창설된다면 그것은 국어의 통일을 필요로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논의의 핵심을 제기한다. 좌담회 주최 측인 『만선일보』와 조선계 작가 측의 관심이 어디에 집중되어있는지 잘 나타내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일계 작가들은 “아직은 각자의 언어를 사용함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만계 작가 작청은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일계 작가들과 교류가 깊고 위망이 높은 만계의 대표작가 고정의 주장을 빌어 “각자 특색을 각자의 언어로서 표현하며 충분한 발전이 있는 뒤에”라고 적극 대응에 나선다. 조선인의 생활은 일본화된 시간이 길어 일본어로 조선생활을 그러도 부자연스러움이 없지 않느냐고 하면서 김사량의 일본어 소설 창작을 예로 드는 일계 작가와 조선계지만 일계작가와만 교류하는 今村의 발언에는 박팔양이 김사량의 한언순문(漢諺純文) 소설이 서먹하고 소설같지 않음을 예로 들어 “생활의 상이한 언어로서 그 생활의 재래로 가졌던 미묘한 것을 독자들에게 전하기에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예요”라고 반대의견을 내놓는다. ‘만주국’ 예문 활동에 대한 조선계 작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표면적으로 강하게 내세운 이 좌담회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잘 보여주는 대목들이다.

그렇다면 『만선일보』는 왜 유독 이 무렵에 만주에서 조선문학의 보존에

그토록 필사적이었을까? 이는 1938년 이후부터 조선 내에서의 일제의 민족 말살정책이 1940년부터 ‘만주국’ 조선인 사회로 그 범위가 확대되었기 때문이다.¹⁸⁾ 『만선일보』에도 조여 오는 일제의 강압 책으로 이미 1939년 경이 되면 편집국장이었던 황보 염상섭과 사회부장이었던 여수 박팔양은 사직하고 다른데로 일자리를 옮기며 편집부의 분위기도 점차 험악해진다. 그리고 급기야 1941년 초에는 일본인이 편집국장으로 부임하게 되며 『만선일보』에 대한 검열이 한층 수위를 높여갔다.¹⁹⁾

Ⅲ. ‘만주국’ 조선계 문학의 이론적 모색: 염상섭과 개척문학

조선문학의 보존을 핵심으로 하는 ‘만주국’ 조선계 문학의 실천을 위한 이론적 모색에 적극 나선 대표적 작가는 염상섭이다. 이미 1939년경에 일제의 압박이 갈수록 조여오는 『만선일보』를 사직하고 신경을 떠나 안동의 회사로 자리를 옮긴 염상섭은 그러나 여전히 재만 조선인 문학가들의 좌장격이었으며 작품 활동은 거의 하지 않았으나 문단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었다. 그가 얼마나 ‘만주국’의 문예정책과 문학의 전개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1941년 11월 15일, 만선일보사에서 출간한 『짜트는 대지』와 1944년 4월 예문당에서 출간한 안수길의 개인 창작집 『북원』에 실린 그의 서문들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염상섭은 『짜트는 대지』의 서문에서 이 작품집을 “滿洲開拓史의 序說”이라고 하면서 “읽어가는 동안에 字字句句에 그네開拓者의 血汗이 서리운듯한 敬虔한 느낌이 없지 안헛든것도 事實이다”고 작품집 전편을 관통하는

18) 박려화, 앞의 논문, 125쪽.

19) 안수길, 2006, 『龍井·新京時代』, 『안수길』(연변대학교 조선문학연구소 편, 보고사, 599~601쪽 참조.

것이 만주 조선간민의 개척사와 개척정신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개척문학으로서의 성격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그는 “그 어느 作品에서나 滿洲의 흙내 안남이 엷고, 朝鮮文學의 어느 구석에서도 엷볼수 없는 大陸文學 開拓者의 文學의 特徵과 新鮮味 新生面을 發見할수 있는것은 全朝鮮文學을 爲하여 큰 收穫이 아니면 아닐것ियो 作家와 編者의 자량이라 할것이다”라고 하면서 개척문학으로서의 성격이야말로 조선문학과는 구별되는 만주의 조선문학의 특징이자 “新鮮味”, “新生面”이라고 강조하였다. 『만세전』 『삼대』의 작가로서 염상섭은 조선문단에서 줄곧 도시중산층의 삶을 집중적으로 파헤친 대표적 작가로 자리매김되고 있었으며 만주에서 역시 도시를 그린 장편소설 『개동』을 『만선일보』에 연재하였다. 그런 염상섭이 이 무렵에는 만주 조선문학의 성격을 개척문학, 흙의 문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것이야말로 만주 조선문학이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껏 도시 중산층의 삶을 그린 문학에만 관심을 갖고 있던 염상섭이 왜 그토록 개척문학 내지 흙의 문학을 강조한 것일까? 물론 1940년 초의 『만선일보』 지상토론 “만주조선문학건설신제의”에 기고한 작가 중에서도 金貴와 같은 작가는 기고문의 제목 자체를 “農民文學의方向”으로 하면서 만주의 조선문학이 농민문학 내지 개척민문학을 중심으로 발전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나는 여기에서 滿洲는아즉까지는 넓은 荒蕪地를開拓하여가는農民이 全人口의最多數를點하고있서 그生産方法이原始的 農耕을主로삼는 情勢에있다고본다.

그리고또한 朝鮮의 自由開拓民혹은 集體開拓民은 거개가 農村으로가서 土地開發에 從事하고있슴으로 이러한 部分的인 文學現象으로서의 農民-더나아가선 滿洲에잇는 農民全體의主體의인對象으로 積極的인農民文學이 成立할수잇을것이라고생각한다.

大陸의인 雄大한創造의性格은 오로지農民을通하여볼수잇슴으로 나는이에 農民(흙)文學을 提唱하러하는者이다.²⁰⁾

20) 金 貴, 1940. 1. 20, 「滿洲朝鮮文學建設新提議(7)-農民文學의方向으로」, 『滿鮮日報』.

위의 인용문에서 金貴가 농민문학을 제창하는 주요 이유는 만주 조선인 중, 농민이 전 인구의 최대수를 점하고 있기 때문이며 조선의 자유개척민 혹은 집단개척민 거개가 농촌으로 가서 토지개발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김귀의 의견과는 달리 황건과 신서야는 “滿洲朝鮮人の 生活的根據가 太半數가 開拓民에屬한것이라고하여 滿洲朝鮮文學이 究農民文學이라야 된다는것은너무 狹量이며近視의偏見이 아닐수없스니”²¹⁾라고 하면서 만주 조선문학이 농민문학을 중심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이는 1940년 초의 『만선일보』 지상토론 중 제기되었던 농민문학에 대한 논의는 단순한 소재론 차원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우리는 염상섭이 『썩트는 대지』의 서문에서 개척문학을 조선의 문학과는 구별되는 만주 조선문학의 독자적인 성격으로 규정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만주국’ 국민문학의 시각에서 그 성격과 발전방향을 규정하고 있음을 주목해볼 수 있다.

그러나 비록 흙에서 나오고 흙내가 배었다 할지라도 本質적으로 眞正한 흙의 文學에까지 發展되어야 하겠고 또 이作品들의 取才의 範圍가 前期開拓民生活의 特殊한類型의事實에 局限된 感이 있는 點으로 보아 이것이 新滿洲의 協和精神을 體得한 國民文學에까지 展開되어야 할것을 그 瞻富한 將來에 크게 期待하며 또 期待에 어김없을것을 믿는 바이다.(『썩트는 대지』의 서문 중 인용.)

위의 인용문에서 보다시피 염상섭은 만주 조선문학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에 대해 개척민의 특수한 사실에 新滿洲의 協和精神을 체득한 국민문학이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즉 『썩트는 대지』에 실린 만주 조선문학이 ‘만주국’의 국민문학이 되려면 협화정신을 체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로부터 우리는 염상섭이 만주 조선문학에 대해 개척문학으로서의 독자성을 강조한 것은 위의 『만선일보』 지상토론 중 제기된 소재론적 차원에서의 논의가 아닌 ‘만주국’ 국민문학과의 연관성을 염두에 둔 발언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21) 申署野, 1940. 1. 31, 『滿洲朝鮮文學建設新提議(16)—滿洲朝鮮文學의性格과特異性』, 『滿鮮日報』.

만주 조선문학의 독자성으로서의 개척문학적 성격과 그 바람직한 발전방향으로서의 ‘만주국’ 국민문학이라는 이 연결고리는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 것일까. 여기서 우리는 ‘만주국’ 예문계를 뒤흔들만한 충격적 사건으로 알려진, 1941년 3월에 반포된 “예문지도요강”의 한 대목을 유심히 살펴볼 수 있다. “1. 취지, 2. 아국예문의 특징, 3. 문예사단조직의 확립, 4. 문예활동의 촉진, 5. 문예교육 및 연구기구” 다섯 부분으로 구성된 “예문지도요강”의 4번째 부분 “문예활동의 촉진” 중 12번째 조항은 “예문을 개척단까지 침투시키고 싹트기 시작한 개척단의 신생문예활동을 육성해야 한다.”로 되어있다.²²⁾ 염상섭은 “예문지도요강” 중, 위의 조항에 각별히 주목하였을 것이다. 물론 “예문지도요강” 중의 ‘개척단’은 ‘만주국’에 입식된 일본인 농민 개척단을 염두에 둔 것이겠지만 만주에 한한 조선인 농민 역시 자유이민이건 일본의 이민정책에 의한 집단이민이건 모두 개척민임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여기서 염상섭은 만주에서 조선문학이 보존되고 발전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근거를 확보하였으며 그 근거를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한 방안으로 개척문학에 근거한 ‘만주국’ 국민문학으로서의 자격 확보를 제시하였다. 많은 작가들이 “오족협화”에 근거하여 조선문학의 보존에 대한 당위적 논리를 반복하고 있을 때, 염상섭은 한발 앞서 일제가 ‘만주국’에서 반포한 “예문지도요강”에서 날카롭게 그 근거를 찾고 있었던 것이다. 염상섭의 날카로운 정치적 감각과 문학적 안목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러한 그의 사상은 안수길의 개인 창작집 『복원』의 「서」에서 한층 더 뚜렷해진다.

《목축기》의 정신과 사상은 이것을 농민에게 옮겨심으면 그것이 그대로 농민도가 되지않을까. 《원각촌》《토성》《벼》등 주요저작에서도 이 정신, 이 사상은 일관하여있다고 보았지마는 만주에서 특히 조선인개척민을 위한 농민문학이 선다면, 그것은 이 《목축기》의 정신과 사상에 다시 협화정신

22) “예문지도요강”의 전문은 오카다 히데키의 논문「위만주국문예정책의 전개(偽滿洲國文藝政策的展開)」(『동북연합시기문학 국제학술토론회의논문집』, 沈陽출판사, 1992) 뒤에 실린 자료 참고.

과 흙에서 깊은숨을 뿜고나오는 신생의 의기와 신인생관이 혼연히 융합된 농민도에 뿌리를 박은 문학이어야할것이 아닌가도 생각하는바이다.

그러나 농민문학이 농민도에 뿌리를 박은것이어야 할것이라하여도 농민도가 서고서 농민문학이 있는것이 아니라 차라리 농민문학이 그러한 취향으로 생성발전하는 과정에서 농민도는 대성하고 보급되는것일것이다. 그럼으로 농민문학의 수립과 발전은 개척민의 마음의 양식인 동시에 수전개간으로써 농업만주를 건설하고 완성하는 정신적 원동력의 공급원이 된다는 공리적 견지로서도 기대와 국가적의의는 큰것이다.²³⁾

염상섭은 만주의 조선인 개척민의 농민문학이 성립된다면 그것은 「목축기」의 정신과 사상에 협화정신과 흙에서 뿜겨져 나오는 신 인생관이 융합된 農民道에 뿌리 박은 문학이어야 한다고 만주 조선인 농민문학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염상섭은 만주 조선인 문학이 개척문학 내지 농민문학이어야 하는 이유를 ‘만주국’의 국가적 차원에서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그것은 조선농민이 ‘만주국’의 국민이 되기 위한 길은 수전개간으로써 만주의 농업건설에 기여하는 것이며 조선인 개척문학 내지 농민문학은 그러한 개척민의 마음의 양식인 동시에 정신적 원동력의 공급원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만주 조선인 개척문학 내지 농민문학 그리고 ‘만주국’ 국민문학이라는 염상섭의 주장이 결코 단순한 만주에서 조선문학의 보존이라는 문학적 차원에서 제기된 것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인 현실에 기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만주에서의 조선인의 삶이라는 매우 구체적인 현실과 그에 기초한 만주 조선인의 문학을 염상섭은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이다.

23) 염상섭, 2006, 『『北原』序 1944』, 『안수길』(연변대학교 조선문학연구소 편), 보고사, 584쪽.

IV. 염상섭 사상의 문학적 실천: 안수길의 『북향보』

만주에서 조선인 개척민의 농민문학 수립이라는 염상섭의 문학적 이론과 사상에 대해 문학적으로 적극 실천에 옮긴 작가는 안수길이었다. 염상섭이 안수길의 개인 창작집 『북원』의 서문을 쓰고 또 그 서문에서 안수길을 가리켜 “이제 이 《북원》을 손에 들고 다시 생각되는바는 今後 滿洲에서 우리의손으로 開拓民文學乃至는 農民文學이 生成한다면 그것은 《북원》에서 起點을 求하여야할것이 아닌가함이요 그 先導로서의 重任을 이著者에게 맡겨야할것이리라”²⁴⁾라는 호평은 단순한 치사로 볼 수만은 없는 것이었다. 그것은 안수길의 작품세계에 대한 평가이자 그의 향후의 창작방향에 대한 기대와 지도에 다름 아니었다. 개인 창작집 『북원』출간 이후 8개월 남짓 지난 1944년 12월부터 일제의 폐망을 앞둔 1945년 4월까지 총 149회에 걸쳐 『만선일보』에 연재된 안수길의 만주에서의 최후의 작품인 『북향보』는 바로 위의 염상섭 사상의 문학적 실천이다. 『북향보』는 “만주에 아름다운 고향을 건설하자”는 조선인 개척민들의 북향의식을 주제로 함으로써 개척민문학 내지 농민문학으로서의 면모를 뚜렷이 나타내고 있다.

안수길은 “현암은 문단(文壇)에서 일어갈오되, 개척민작가(開拓民作家)라고 하였다. 또 만주의농민작가(農民作家)라고도 일컫었다”라고 하면서 실은 순예술파에 속하는 작가의 소질을 가진 현암이 건강이 여의하여 동경이나 서울에 있었다면 그러한 순예술파에 속하는 어떤 작가의 아류(亞流)가 되었을지도 모른다고 하였다. 안수길은 현암이 만주의 개척민 작가 내지 농민작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동경이나 서울이 아닌 만주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조선문단의 아류가 아닌 만주 조선인 문학의 독자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현암은 부조가 이룩하여 놓은 이 땅 만주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와서 몸을 휴양하고 있는 동안에 고로(古老)들에게서 귀로 듣고 문헌으로

24) 염상섭, 2006, 위의 글, 583~584쪽.

상고하고 그리고 어릴 때(그는 열세 살에 만주에 들어와 소년 시절을 지냈다)에 그 자신이 경험한 바를 증언하며 얻은 상념 즉, 부조 개척민이 고투사(苦鬪史)를 쓰라고 하자, 그들의 고난을 후배인 우리가 회고 추상(回顧追想)하여 글자로 남겨둔다는 것은 첫째로 그들의 고난에 대한 후진으로서 응당 있어야만 할 감사의 표시도 되는 것이요, 이곳에 살고 있고 또 뿌리를 파고 발전하려는 동포에게 선진자의 고난을 알리는 역할도 되는 것이라 생각하고...(중략)

첫 작품에 성공한 현암은 그 후에도 수삼 편의 그런 종류의 작품을 써서 문단적으로도 기대를 받는 작가가 되었으나 문단의 기대보다는 그의 어깨를 무겁게 한 것은 ‘부조가 팽이와 호미로 한 일을 붓과 원고로써 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이것이 문학인의 만주 개척에 다 하는 이바지라 생각하였다.

그는 다시금 만주에 있는 조선 사람의 생활을 속속들이 알고 하였다. 그리고 어떠한 문학이 가장 재만 동포의 정신의 양식이랄 수 있을까 생각하였다. 개척민과 농민의 생활을 그리고 개척지와 농촌의 문제를 살피는 문학이 바로 그것이라, 그는 문제없이 결론을 지었다. 그 방면에 손을 대어오면 그로서는 아전인수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연한 결론이 아닐 수 없었다.²⁵⁾

위의 인용문에서 열세살에 만주에 이주하였고 또 장성한 뒤에는 만주의 부모 집에 돌아와 몸을 휴양하면서 그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만주 개척민의 고투사 즉 前期 간민의 수난사를 형상화한 작가 현암이 안수길 자신의 자전적 모습임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부조가 팽이와 호미로 한일을 붓과원고로서해야 된다”는 현암의 비장하면서도 야심만만한 생각은 마치 『썩트는 대지』의 서문에서 “그보다도 이 땅에서 자라난 先住開拓者의 子孫으로서 自己를 알고 現實을 살피며 將來를 위하여 크게 發憤하고자 할진대 먼저 이 父祖와 先進의 深刻한 受難의 記錄을 반드시 銘肝하여 熱讀할 義務가 있다고 믿는다”라고 만주 조선인 문단을 향해 간절히 호소했던 염상섭의 그 절절한 기대를 염두에 둔 듯한 느낌마저 갖게 한다. 또한 어떠한 문학이 재만 동포의 정신의 양식이랄 수 있을까 라고 질문을 제기하고 “개척민과 농민

25) 안수길, 2011, 『북향보 회환』 (안수길 전집 3), 글누림, 170~171쪽.

의 생활을 그리고 개척자와 농촌의 문제를 살피는 문학이 바로 그것”이라고 답안을 제시하는 대목은 『복원』의 서문에서 “농민문학의 수립과 발전은 개척민의 마음의 양식”이라고 했던 염상섭의 만주 조선인 문학에 대한 인식과 사상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하다.

안수길의 『북향보』는 오찬구를 비롯한 정학도의 제자들이 대주주 박병익의 농간으로 은행에 넘어가 경매에 부쳐지게 된 북향목장을 위기에서 구해내는 이야기를 주선으로 하고 있으나 정작 전체 이야기의 중심은 목장경영이나 목축업보다는 조선농민의 수전개간과 벼농사에 있으며 조선농민의 수전개간의 역사, 모내기의 장면 등에 절대대부분의 편폭을 할애하고 있다.

“조선 농민은 만주에 덕(德)의 씨를 심은 사람들일세. 조선 농민의 이주사를 줄잡아 70년이라고 한다면 70년 전이나 오늘이나 농민이 이곳에 이주한 까닭은 한결같이 여기 와서 처자 권속을 거느리고 먹고 사자는 것밖에 없었네. 그 살자는 것도 고스란히 누워서 이곳에 마련되어 있는 것을 낚낚 집어 먹자는 비루한 생각이 아니었었네. 그들은 범씨와 호미를 가지고 왔네. 넓고 거칠어 쓸모없는 땅에 옥답(玉畓)을 만들고 거기에 범씨를 심어 요즈음 말로 하면 농지 조선 농산물 증산에 땀을 흘린 값으로 이곳에서 먹고 살자는 것이었네. 얼마나 깨끗한 생각이요, 의젓한 행동인가.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울 것이 없고 땅을 내려 보아도 역시 부끄러울 데 없는 바일세. 그러나(물론 건국 이전의 일이지만) 이런 깨끗한 생각과 뻥한 이치가 이해되지 못하고 가지가지의 곤경을 겪었으니 이런 역울할 데가 어디 있겠나. 했으나 그들 덕을 가진 그들은 더욱 벼를 심으면서 갖은 악몽과 핍박을 굳세게 참고 버티온 것일세. 그 심은 덕의 씨에서는 싹이 돋았네. 만주 건국은 처음으로 돋은 덕의 싹이었었네.

이것은 다른 면으로 상고한다면 70여 년간 백만이 넘는 조선 농민이 이곳에서 버티고 버틴 그 힘이 그들은 한 번도 제 공로를 주장한 일이 없었고 예나 이제나 다름없이 수전을 풀고 벼를 심는 일을 천직으로 여기고 묵묵히 이 일만을 해오고 있는 것일세.”²⁶⁾

위의 인용문에서 안수길은 조선농민들은 범씨와 호미를 가지고 넓고 거칠어 쓸모없는 만주 땅을 옥답으로 만들고 범씨를 심어 땀을 흘린 값으로 만주에서 먹고 살 충분한 권리와 자격을 얻은 것이라고 하면서 조선농민의 만주 이주는 어디까지나 만주 개척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그 거주와 정착의 권리와 자격을 얻은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²⁷⁾ 즉 조선농민은 이미 개간된 만주 땅에 이득을 취하려고 온 외부 침입자가 아니라 미개간지였던 황폐한 만주땅을 오늘날의 살기 좋은 옥답으로 만든 만주 개척의 공로자라는 것이다. 조선농민은 바로 그러한 만주 개척의 공로가 ‘만주국’으로부터 충분한 긍정을 받아 만주국 건국과 함께 떳떳한 만주국의 일원으로, 만주국 국민으로 인정받았으며 그것이야말로 조선농민이 70년 가까이 이르는 이주사의 긴 기간 동안의 갖은 박해와 핍박을 참고 견디어온 뒤 처음으로 획득한 “덕의씩”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안수길은 만주 개척의 공로를 통한 조선농민의 ‘만주국’ 국민으로서의 자격을 확인함과 동시에 벼농사 즉 수전개간의 공로를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조선 농민이 벼농사를 잘 짓는다는 것이 세상이 다 인정하는 일이지만 그 잘 짓는 까닭은 벼를 자식 같이 사랑하는 때문이라고 생각하네. 꼬-량이 나 뽕-미 농사로도 소출이 흡족한 곳에서 구태여 논을 풀어 벼를 심는 마음이라든가 산간벽지가 되어서 논을 전혀 풀 수 없는 곳이지만 노준때만한 땅이라도 논을 만들 수 있다면 논을 만들어 벼를 심는 마음을 생각해본다면 그것은 벼를 아들로 생각하는 마음이 아니면 못하는 일일 것일세.”²⁸⁾

벼농사 즉 수전개간이 만주의 조선농민에게 있어서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에 대해 안수길은 “농민도란 모포기를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이라고 하면서 조선농민들이 벼를 제 자식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만주의 척박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벼농사 즉 수전개간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쓰고 있다. 또한

27) 이해영·임몽, 2013, 8, 『만주국 ‘鮮系’ 문학 건설과 안수길』, 『한국현대문학연구』 40, 308쪽.

28) 안수길, 2011, 앞의 책, 219쪽.

조선 농민이 벼농사를 잘 짓는다는 것은 세상이 다 인정하는 일이라고 함으로써 벼농사야말로 타민족이 대체할 수 없는 조선농민의 특수성이자 ‘만주국’에 대한 특수한 기여임을 강조하고 있다.²⁹⁾

“더욱이 선계가 만주국에서 나라에 이바지하는 일은 오직 수전 개간과 수전 경작에 의한 식량 기여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선계가 떳떳이 국민으로서 대접을 받고 그 존재를 주장할 수 있는 점은 이 농민들의 수고 때문이라 생각해도 무방할 줄 알아요. 그러할진대, 농민에게 그 은혜를 백배 사례해도 모자란다고 생각하는데 되레 멸시를 하다니 당신네들 생각은 알 수 없는 일이에요.”³⁰⁾

위의 인용문은 ‘만주국’ 성공서 기좌로 있는 일본인 관리 사도미가 친구에게 한 말로서 ‘만주국’의 지배계층인 일본인 관리들마저 조선계가 떳떳이 ‘만주국’ 국민으로 대접받고 그 존재와 자격을 주장할 수 있는 점은 수전 개간과 경작에 의한 기여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지배계층인 일본인 관리의 입을 빌어 ‘만주국’의 공식적 입장 역시 조선계의 수전개간과 수전경작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지속적으로 그 특수성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때만이 ‘만주국’의 국민으로서의 자격을 확고히 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성공서 기좌인 사도미의 실제 업무는 성내의 목축 장려와 그 진흥 조성에 대한 일이며 단순한 농업이 아닌 목축을 겸한 유축농업(有畜農業)이며 조선농민들에게 목축의 사상을 함양시키는 것이다. 즉 간도지방은 개척의 역사가 오래되어 개간할 수 있는 공지는 모두 개간되었으므로 단순 농업보다는 유축농업으로 개편시키자는 것이 ‘만주국’ 정부의 방침이자 사도미 자신의 포부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그런 목적으로

29) 그러나 일본의 패전을 앞둔 1945년의 시점에서는 “이러한 조선 농민들의 소박한 이상조차도 일본제국에 의해 생산력주의라고 하는 교묘하게 조장된 식민주의의 이데올로기로 전유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서재길은 일제 말 문학작품이 갖고 있는 중층적이고 복잡한 성격에 대해 지적하였다(서재길, 앞의 글, 569쪽).

30) 안수길, 2011, 앞의 책, 127~128쪽.

목축에 목적을 가지고 있는 성실한 사람을 지도일군으로 뽑으려고 하며 그 책임자로 찬구를 지목하였다는 것이다. 이처럼 조선농가에 현재의 자력에만 맡기는 농업 외에 목축사상을 적극 함양시키려는 사도미가 정착 조선계가 ‘만주국’에서 국민적 자격과 확고한 지위를 확보하는 길은 “오직 수전개간과 수전경작에 있다”고 하는 대목은 ‘만주국’이 조선농민에 대한 요구가 무엇인지 그리고 조선인이 ‘만주국’에서 그 지위와 생존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길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고 있다. 이는 결국 『북원』의 서문에서 “水田開墾으로써 農業滿洲를 건설하고 완성”한다고 했던 염상섭의 사상과 동계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결국 체질적으로 만주 개척문학에 관심을 갖고 ‘만주국’ 문단에 등단하여 『만선일보』를 중심으로 한 ‘만주국’ 문단에서 성장했던 안수길은 『만선일보』 기자시절 행운스럽게도 편집국장으로서 부임된 조선의 대문호 염상섭을 만나게 된다. 조선 중앙문단으로의 진출을 꿈꾸며 야심차게 문학공부에 정진하던 문학도 안수길에게 염상섭과 같은 조선의 대문호를 곁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감격이었을 것이고 또한 염상섭에 대한 안수길의 태도는 존경 이상으로 경모에 가까운 것이었음은 훗날 『龍井·新京時代』를 비롯한 그의 회고록 등 여러 글에서 잘 드러난다. 실제로 안수길이 1948년 3.8선을 넘어 인척하나 없는 생소한 남한 땅에 월남했을 때도 『경향신문』 기자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이 역시 염상섭이었음은 그의 회고록에 잘 드러나 있다. 그러므로 26세 젊은 나이의 애송이 기자로 평소에 숭배해마지 않던 조선의 대문호 염상섭을 만난 안수길이 그 인연을 매우 소중하게 여기며 그의 가르침을 성서처럼 중요하게 생각하였을 것임은 이론의 여지도 없는 일일 것이다. 결국 염상섭이 재만 조선인 첫 작품집 『씩트는 대지』의 서문과 특히 안수길의 개인 창작집 『북원』의 서문에서 보여준 문학사상은 안수길에게 일종의 정신적 기둥이자 식량이 되었을 것이고 안수길은 그것을 『북향보』의 창작지침으로 삼았을 것이다. 즉 안수길의 개척민 작가로서의 체질적 특징과 염상섭의 문학사상이 결합되어 『북향보』라는 만

주 조선인 개척문학 내지 농민문학의 대표작을 낳은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V. 결론

이상에서 본고는 ‘만주국’ 조선계 문단의 향토담론과 그 맥락 속에서 안수길의 장편소설 『북향보』를 살펴보았다. ‘만주국’ 조선계 문단의 향토담론은 1930년대 제국 일본의 중앙문단 즉 일본 본토문학에서부터 시작되어 일본 제국의 각 식민지로 파급된 제국의 향토담론의 일환으로 이루어진다. 1939년말 ‘만주국’의 일계와 만계 작가 사이에서 준비되고 있었던 ‘일만문예협의회’설립 추진이 그 촉발 계기가 되어 이루어진 ‘만주국’ 조선계 문단의 향토 담론은 1940년 초의 “만주조선문학건설신체의”를 제목으로 한 『만선일보』 지상토론과 이어 약 한달 뒤 『만선일보』사 주최로 이루어진 “내·선·만 문화좌담회”로부터 시작되었으며 기본적으로 ‘만주국’ 조선계 문학의 독자성을 강조하였다. 그런데 ‘만주국’의 건국이념인 민족협화에 기반하여 『만선일보』가 내세운 ‘만주국’ 조선계 문학의 독자성은 표면적으로는 ‘만주국’의 일계 문단과 마찬가지로 본토 문단 즉 조선문단과의 분리를 이야기하고 있었으나 그 본질은 만주에서 조선문학의 보존 즉 조선어로 창작되는 조선문학의 보존에 있었으며 이는 1938년 이후부터 조선 내에서의 일제의 민족말살정책이 1940년부터 ‘만주국’ 조선인 사회로 그 범위가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조선문학의 보존을 핵심으로 하는 ‘만주국’ 조선계 문학의 실천을 위한 이론적 모색에 적극 나선 대표적 작가는 염상섭이다. 염상섭은 그 특유의 날카로운 정치적 감각으로 일제가 1941년 ‘만주국’에서 발표한 “예문지도요강” 중의 “예문을 개척단까지 침투시키고 싹트기 시작한 개척단의 신생문예활동을 육성해야 한다”는 조항에서 만주에서 조선문학이 보존되고 발전

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확보하였으며 그 방안으로 개척문학에 근거한 ‘만주국’ 국민문학으로서의 자격확보를 제시하였다. 만주에서 조선인 개척민의 농민문학 수립이라는 이러한 염상섭의 문학사상은 재만 조선인 첫 작품집 『싹트는 대지』와 안수길의 개인 창작집 『북원』의 서문에 잘 나타나 있으며 안수길은 만주시기 작품의 총 결산이자 그의 최초의 장편소설이기도 한 『북향보』에서 염상섭의 이러한 문학기론과 사상을 적극 실천하였다. 안수길은 『북향보』에서 만주 개척의 공로를 통한 조선농민의 ‘만주국’ 국민으로서의 자격을 확인함과 동시에 벼농사 즉 수전개간의 공로를 특별히 강조하였다. 이는 조선농민이 ‘만주국’의 국민이 되기 위한 길은 수전개간으로써 만주의 농업건설에 기여하는 것이며 조선인 개척문학 내지 농민문학은 그러한 개척민의 마음의 양식인 동시에 정신적 원동력의 공급원이 되기 때문이라고 한 염상섭의 문학사상과 동궐에 놓이는 것이다. 결국 안수길의 개척민 작가로서의 체질적 특징과 염상섭의 문학사상이 결합되어 『북향보』라는 만주 조선인 개척문학 내지 농민문학의 대표작을 낳은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안수길, 2006, 『龍井·新京時代』, 『안수길』(연변대학교 조선문학연구소 편), 보고서
안수길, 2006, 『북향보』, 『안수길』(연변대학교 조선문학연구소 편), 보고서
안수길, 2011, 『북향보 화환』(안수길 전집 3), 글누림
염상섭, 1941. 11. 15, 『『썩트는 대지』서』, 『썩트는 대지』(신영철 편), 만선일보사
염상섭, 2006, 『『北原』序』, 『안수길』(연변대학교 조선문학연구소 편), 보고서
윤도혁, 1940. 1. 17, 『滿洲朝鮮文學建設新提議(4)—滿洲朝鮮文學의傳統性과特異性』, 『滿
鮮日報』
윤도혁, 1940. 1. 18, 『滿洲朝鮮文學建設新提議—滿洲文學人の 方向과文學의態度』, 『滿
鮮日報』
金 貴, 1940. 1. 20, 『滿洲朝鮮文學建設新提議(7)—農民文學의方向으로』, 『滿鮮日報』
申署野, 1940. 1. 30, 『滿洲朝鮮文學建設新提議(15)—滿洲朝鮮文學의性格과特異性』, 『滿
鮮日報』
申署野, 1940. 1. 31, 『滿洲朝鮮文學建設新提議(16)—滿洲朝鮮文學의性格과特異性』, 『滿
鮮日報』

2. 단행본

- 김윤식, 1986, 『안수길 연구』, 정음사
프래신깃트 두아라, 한석정 역, 2008, 『주권과 순수성』, 나남
오양호, 1988, 『한국문학과 간도』, 문예출판사
오카다 히데키, 최정옥 역, 2008, 『문학에서 본 ‘만주국’의 위상』, 도서출판 역락
장춘식, 2004, 『해방전 조선족 이민소설 연구』, 민족출판사
최경호, 1994, 『실향시대의 민족문학-안수길 연구』, 형설출판사
채 훈, 1990, 『일제강점기 재만 한국문학연구』, 깊은샘

3. 논문

- 김미란, 2009, 『만주, 혹은 자치에 대한 상상력과 안수길 문학』, 『상허학보』 25
김종호, 1993, 『1940년대 초기 만주 유민소설에 나타난 ‘정착’의 의미-『대지의 아들』
과 『북향보』를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25
김재용, 2012, 『동아시아적 맥락에서 본 ‘만주국’ 조선인 문학』, 『문명의 충격과 근
대 동아시아의 전환』(이혜영 편, 중국해양대학교 한국연구소 총서), 도서출
판 경진

- 민현기, 1989, 『안수길의 초기 소설과 간도 체험』, 『한국근대소설과 민족 현실』, 문학과 지성사
- 박려화, 2017. 2. 24, 『일제말 ‘만주국’과 재만조선인작가의 문학열』, 『帝國與鄉土』 프라임 인문학진흥사업단 글로벌 동아시아 문화콘텐츠 교실·원광대학교 국제학술학회 논문자료집
- 서재길, 2011, 『안수길의 초기 장편소설』, 『북향보 화환』(안수길 전집 3), 글누림
- 오테영, 2008, 『‘조선’ 로컬리티와 (탈)식민 상상력 - 이효석의 『화분』과 『벽공무한』을 중심으로』, 『사이間 SAI』 4
- 오카다 히데키, 1992, 『위만주국문예정책의 전개(僞滿洲國文藝政策的展開)』, 『동북운합시기문학 국제학술도론회의논문집』, 沈陽出版社
- 유수정, 2011, 『만주국 초기 일본어문학계의 <만주문학론>』, 『韓日軍事文化研究』 11
- 이상경, 1996, 『간도체험의 정신사』, 『작가연구』 2, 새미
- 이해영·임몽, 2013. 8, 『만주국 ‘鮮系’ 문학 건설과 안수길』, 『한국현대문학연구』 40
- 이해영, 2014. 8, 『안수길의 장편소설 『북향보』의 현실인식』, 『한국현대문학연구』 43
- 이해영, 2015. 9, 『僞滿洲國 조선계 작가 안수길과 ‘민족협화』』, 『국어국문학』 172
- 정덕준, 2004. 12, 『안수길 소설연구』, 『한국문예비평연구』 15
- 정현숙, 2005, 『안수길의 『북향보』론』, 『한국언어문학』 54
- 한수영, 2004, 『친일문학 논의와 ‘재만조선인문학’의 특수성』, 『재일본 및 재만주 친일문학의 내적 논리』, 도서출판 역락

투고일 : 2017년 4월 28일, 심사완료일 : 2017년 6월 7일, 게재확정일 : 2017년 6월 7일

■ Abstract ■

Hometown Discourse of the Korean Literary World in
‘Manchukuo’ and An Soo-gil’s *Buk Hyang Bo*

Li Haiying (East China Normal University /Ocean University of China)

This paper is a study on hometown discourse and the Korean literary world’s writing style influence on ‘Manchukuo’ and An Soo-gil’s novel *Buk Hyang Bo*. As part of the hometown discourse of Imperial Japan, the hometown discourse of the Korean literary world started with “The Manchurian Korean Literature Construction” published in Man Sun Daily in the early 1940 and the “Japan-Korea-Manchukuo’s Cultural Forum” held by Man Sun Daily one month later. Basically, the discourse emphasized the uniqueness of Korean literature, but its essence was the preservation of Korean literature in Manchukuo which was realized with the preserving of Korean literature written in Korean. Yeom Sang-seop was the representative writer who actively pursued a theoretical search for the practice of the Korean literature in Manchukuo, and in essence preserved Korean literature. By his unique political sensitivity, he pointed out that “this guideline should penetrate to the pioneer group and should be used to foster the new-born literary activities of the pioneer group” mentioned in “Art and Literature Guidelines” was the basis of preservation and development of Korean literature in Manchukuo. He also pointed out that ‘Manchukuo’ national literature based on the pioneer literature could also be guaranteed in this way. An Soo-gil actively practiced Yeom Sang-seop’s literary theory and thought that *Buk Hyang Bo* was the first novel-cum-anthology of his works in Manchukuo period. An Soo-gil confirmed Korean peasants’ qualification as citizens of Manchukuo according to their contributions to the development of Manchukuo in *Buk Hyang Bo*, and especially emphasized the contribution of rice cultivation or the

“reclamation of the paddy field”. Following Yeom Sang-seop’s thought, An Soo-gil also thought that this was a way for Korean peasants to become citizens of Manchukuo, meanwhile, the pioneer literature of Korean people and the peasant literature were the form of pioneers’ mind and the source of their mental power. For this reason, the literary thought shown in the preface of the Yeom Sang-seop in the first collection of Korean literature in Manchukuo, *Burgeoning Earth* and the literary thought was presented in the preface of the anthology of An Soo-gil’s works. Bukwon was a kind of spiritual pillar and food for An Soo-gil, with which he wrote *Buk Hyang Bo*.

